



“최강 전복 이겨보고 싶다”
수원FC 조석제감독의 꿈
8면

스포츠동아

2016년 4월 22·23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리우행 좌절된 박태환
등아수영대회 출전 왜?
3면



꽃이 피어서 봄이 아니라, 그대가 돌아와서 진정한 봄이다

암을 이긴 정현욱 ‘다시 찾은 봄날’



위암을 이기고 돌아온 LG 정현욱은 요즘 마운드에서 하루하루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이재국의 야구여행

한때 대식가였고 밥먹듯 던진 ‘국민노예’
팔꿈치·위암 수술 극복하고 ‘오독이처럼’
1043일 만에 1군 등판 세이브 ‘인간 승리’

“꽃간이 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비가 많이 드니 둘 중 하나는 트레이드해야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구단 내부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들었을까. 정현욱(38·LG)은 1996년 삼성에 입단한 뒤 동기인 이계성(현 KBO 심판위원)과 함께 ‘대식가’로 이름을 떨쳤다. 2군 소속인 경산블파크 식당의 음식을 흡입하다시피 먹어치웠다. 슬럼프 없는 식욕으로 다른 선수들이 먹다 남은 밥통까지 다 비우곤 했다. 그래서 불은 별명이 ‘경산의 하이어나’였다.

하루는 저녁식사를 끝내고 돌아서자마자 허기를 느꼈는지, 둘은 경산블파크 인근 식당가로 가 감자탕 대(大)자 밥비를 비웠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이들의 손에는 사이 좋게 큰 비닐봉지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본 구단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나자빠졌다. 빵이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요.” 둘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정현욱은 오랜 무명생활 끝에 ‘삼성의 마당쇠’로 자리 잡았다. ‘밥 먹듯’ 마운드에 올랐다.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노예’로 야구인생의 꽃을 피웠다. 2012년 말 FA(프리 에이전트)로 LG와 계약한 그는 2013년 전반기 즐기차게 마운드에 올랐다. 54경기나 등판한 그의 헌신 속에 LG는 암흑기를 청산하고 11년 만에 가을잔치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불청객이 찾아왔다. 2014년 팔꿈치가 아팠다. 그해 7월 8일 잠실 두산전을 마지막으로 1군 마운드를 떠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1군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팔꿈치 뼈조각 제거수술을 한 그는 더 큰 인생의 불청객과 마주쳤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선고를 받은 것이다.

“무명시절 만나 6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면서 결혼까지 해준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애써 담당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보다는 가족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는 점. 그러나 불행스러운 건 암세포가 자리 잡은 위치였다. 고약하게도 위의 상단에 붙어 있었다. 암세포 아래는 다 잘라내야 하는 위암수술의 특성상 ‘전(全) 절제’를 해야만 했다. 식도와 소장을 이어 붙였다.

“암 수술을 받고 나니 생과 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는 건 뭘지, 죽는 건 뭘지...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되겠다고요. 커 가는 애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일어났다고 다짐했죠. 3개월쯤 지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해도 된다고, 야구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빠가 위암수술 받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암투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외로운 싸움을 해나간 그는 3월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시범경기 두산전에 깜짝 등판해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다시 퓨처스리그에 내려가 시즌 개막을 맞이한 그는 15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전을 앞두고 1군에 호출됐다. 14-1로 크게 앞선 6회말 2사후 마운드에 올라 3.1이닝 3안타 무실점. 같은 위암 수술을 받은 한화 정현석과 눈빛의 위압 속에 정면승부를 벌이면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1043일(2013년 6월 7일 잠실 롯데전 이후)만의 세이브.

“한때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기도 했는데, 이제 소식이가 됐어요. 저녁 9시 이후엔 아무 것도 안 먹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자주 찜겨 먹어야 하죠. 제 가장 안에는 늘 바나나며, 사과며,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아내가 매일 챙겨주고 있거든요. 예전엔 잘 쳐다보지 않던 과일인데, 이제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해요.”

웃는 얼굴이 많이 아워었다. 건강했던 체격과 탄탄했던 하체는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진 탓에 유니폼 바지가 팽퍼럴 정도도 말했다.

주무기인 나카 큰 커브처럼 그의 인생도 굴곡졌다. 그러나 그는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차디찬 겨울을 견뎌낸 그는 봄처럼 우리 곁에 다시 왔다. 그리고 날마다 울랐던 그 ‘꿈의 언덕’에 다시 우뚝 서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졌다. 우리에게,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와서 봄이다. keystone@donga.com



송혜교 기증 한글 안내서 이번에는 ‘자유의 여신상’

한국여행객 위해 2012년부터 기증

배우 송혜교(사진)가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한글 안내서를 제작, 기증한다.

최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월13일)을 맞아 중국 후난성 창사의 임시정부청사에 한글안내서 1만 부를 제작·기증해 화제를 모은 송혜교는 다음 한글안내서 기증처를 자유의 여신상으로 정했다. 현재 송혜교는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관련사항을 논의 중이다. 송혜교는 안내서 제작비 전액을 부담한다.
송혜교의 한 측근은 21일 “해외촬영이나 여행으로 현지 유적지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중국어, 일부러 서비스가 있는데, 한국어 안내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송혜교는 평소 우리 역사에 관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왔다. 최근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제안한 거액의 광고모델 제안을 거절해 화제를 모았다. 이유는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징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현재 소송 중인 전범기업이라는 점에서다.

송혜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상황이었던 건 누구나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우니까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시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도 SNS를 통해 “송혜교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글로벌 시대에 문화와 역사를 지킬 줄 아는 멋진 배우”라고 평가했다.

송혜교는 2012년부터 서 교수와 함께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충칭·항저우의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윤보길기념관, 하얼빈 안중근기념관, 미국 보스턴미술관, 로스앤젤레스의 안창호기념관,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뉴욕의 독립운동거점지인 뉴욕한인교회, 캐나다 토론토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해외의 독립운동유적지에 한글 안내서 제작해 기증해왔다. 올해는 유럽지역 유명 미술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태후’ 송혜교·김민석 작가 인터뷰 10면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수비 위주로 버텨야 산다” 넥센 염경엽 감독 현실론

‘화력 야구’ 대신 실점 최소화 전략

넥센 염경엽(사진) 감독은 4~5월, 초반 레이스를 두고 ‘전쟁’이라고 했다. 순위 판도를 가를 수 있는 두 달 동안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넥센은 시즌 개막 전만 해도 강력한 ‘골짜기 후보’였다. 타선에서는 1년 전 강정호(피츠버그)에 이어 ‘홀런왕’ 박병호(미네소타)마저 메이저 리그로 갔고, 중심타선을 든든히 지켜주던 유한준(kt)도 FA(프리 에이전트)로 팀을 떠났다. 마운드에선 마무리 손승락(롯데)이 FA 이적했고, 한현희의 팔꿈치 수술에 이어 조상우마저 수술대에 올랐다. 최하위 후보라는 예상이 나올 만도 했다.

그러나 막상 시즌에 들어가니 미디어데이 때 염경엽 감독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전력’이 빛을 발했다. 20일까지 8승1무7패로 선전하고 있다. 잠시나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염 감독은 “현재 우리 목표는 ‘버티기’다. 다른 팀은 몰라도 우리 떨어지면 올라 힘도 없다. 지금 인원으로 계속 야구를 해야 한다. 두 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승)석민이는 전력이 끝나야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넥센은 내야수 윤석민을 제외하면 전력 이탈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전력이 거의 ‘베스트’다. 5월까지 두 달간의 승부에서 어떻게든 상위클래스에 붙어 있어야 가을야구를 기약할 수 있다. 염 감독은 “두 달 동안 버티면서 우리 힘을 길러야 한다. 캠프 때부터 우리 야구를 바꾸려 했다. 그동안 우리 3점을 주면 5~6점을 뽑아서 이기는 야구를 했다. 그러나 이제 방망이로 하는 야구가 안 되니 실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 때부터 수비 위주로 팀을 훈련시킨 이유다.

‘방망이’로 점철되던 그동안의 넥센 야구는 기로에 서있다. 과거와는 다른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온 불가피한 변화다.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다. 20일 문학 SK전에서도 수비 실책 3개로 승리를 헌납하고 말았다. 넥센이 염 감독의 바람대로 ‘버티기’에 성공할 수 있을 까.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생태같은 동태탕! 맛이 라웁니다. 신선함이 라웁니다.

바다양분이 동태탕 업종변경 380 만원

점주시공 - 간판류(간판파일제공) / 본사지원 - 그릇, 전단홍보, POS, 교육 일체 다포함

전국 260 호점 성업중

업종변경 지원목록

1. 점주시공 - [간판류] 전판간판천갈이 / 돌출간판천갈이 / 외부유리창천천 / 내부메뉴판 / 현수막 / POP
2. 본사지원 - [주방그릇] 양분이 1, 2, 3, 4인용 / 전골냄비(중.대) / 찜질판(중.대) / 동태찌기 / 만두찌기 / 동태찌판 / 저울 / 사쿠 / 개량스푼 / 동태칼 / 앞치마 [전단홍보] 전단지(8,000장) / 별지 / 명함 [포스시스템] 컴퓨터 1대 (월700원 무상임대) [조리교육] 조리사파견 및 출장조리교육

성공창업포인트

1. 아채값 부담이 진짜로 없다.
2. 마진이 진짜로 높다. (75%이상)
3. 조리가 진짜로 간편하다.
4. 점심, 저녁 매출이 진짜로 높다.
5. 맛은 묵숨결고 진짜로 확실합니다.

문의/전/화 1688-4938

www.badajini.co.kr